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실업률’

(욥기 26:1~14)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8.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실업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실업률’

사전에서 말하는 실업률의 정의는 “만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직업이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할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일자리 추경을 위해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국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나 결혼률도 세계에서 최고로 저조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계산하면 얼마 뒤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 그만큼 직업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실업률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만 ‘사명감률’입니다. 뉴스를 보자면 모든 일의 목적이 돈인 것 같습니다. 판검사들의 목적도 돈이고, 교수의 목적도 돈이고, 정치인들의 목적도 돈으로 보입니다. 모든 직종의 다양한 사명감이 오직 돈의 가치에 획일적으로 치환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책들이 최종적으로는 돈을 향해가는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명감

이 없어진 것입니다. 보람을 사명감에서 찾아야하는데 공무원들을 보더라도 요새 AI나 메르스 문제, 안전문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능력 등을 보면 사명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적폐청산이나 제도개혁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 전 국가적으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명감이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사명감률은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업률이나 사명감률보다 더 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실업률'입니다. 하나님 실업률을 제로로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영역의 비율이 바로 하나님 실업률입니다.
앞서 실업률을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일하실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주체가 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일자리로 삼지 못하시는 영역이 몇 퍼센트냐가 바로 하나님 실업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따로 주체적인 판단과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10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실업률이 제로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생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의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일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주인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실업률과 인간의 사명감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인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을 고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신앙 그 자체입니다. 내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검사로서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면 그 활동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

시도록 하는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사명은 내가 맡은 직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은 내 마음의 공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부활과 승천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을 영들의 세계인 하늘에 국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늘 군대의 통솔자이시고 이 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라는 경계 안에 계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욥은 빌닷의 생각을 반어법적으로 나무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을 하늘에 국한시킨 빌닷과는 다르게 우선 가장 낮게 여겨지던 지옥(스올)을 언급합니다. 또한 바다 밑 세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됨을 말하면서, 그 중간에 우주 속에 매달려 있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변론의 차이점을 좀 더 정확하게 꼬집어보자면, 빌닷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닌 이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주체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하며 사는 것이 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면,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관점입니다.
즉 이 세상은 내가 내 삶에 대해 주인이 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주인이 되는 것은 주체성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호불호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고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 빌닷은 이 세상을 인간의 주체성이 활성화되기 위한 공간으로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은 단순한 심판자로서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 복이나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춘하추동의 계절이 바뀌는 것과 바다에 생물이 살고 하늘에 별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일하심으로 여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러한 역사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설명합니다. 욥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단순히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무인격적 비인격적인 활동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도 땀을 흘리시며 해를 들어서 뜨게 하시고 달을 들어서 지게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활동에 의한 결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단순한 자연법칙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욥의 신앙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주인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지를 계획하고 소원합니다. 이럴 때에 먹고 사는 영역부분에서 하나님은 일자리를 빼앗기시는 것입니다.
앞서 실업률을 '노동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영역에 대해 일하실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주인 됨으로서 하나님께는 실업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판단하고 주인 된 자리에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적재적소에 고용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용정책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실업률을 제로로 끌어내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도 하고 목회 세미나도 다니고 독서도 하고 심방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명은 오직 목회현장에서 하나님께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내게 급박한 상황과 삶의 문제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십 년이 흐른 후였지만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 사건을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들을 볼 것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삶의 주인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해 주체성을 포기하거나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양보하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주체성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음을 고백하면 특별한 일이 생겨납니다. 십자가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온 세상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그것을 이용해 집을 지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시면 주님이 백합화와 새를 보시면서 아버지의 돌보심을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견고해지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차이입니다.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악함조차도 조정하십니다. 악한 상태에서 힘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소원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힘은 우리에게서 발생하되 그 힘이 흘러가는 경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관여하시는 섭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죄가 극복되었을 때에 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체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계신 상태가 죄인데, 그것이 십자가로 극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자리에 오셔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긍정적인 계획과 의로운 뜻과 계획을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실업률을 십자가를 통해서 제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보다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터가 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사장님을 대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주님의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영역의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좋고 나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자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더라도 내가 주인 됨을 고집한다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업률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가 되고 의로운 뜻과 계획이 수행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의 실업률을 제로로 끌어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직장 없는 자들의 실업률과 직장을 가진 자들의 사명감률에 앞서서 하나님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